

제28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2021년 2월 25일(목)

10:00-12:00

장소 한국행정연구원 강당동 2층 대강당

주최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28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2021년 2월 25일(목)

10:00-12:00

장소 한국행정연구원 강당동 2층 대강당

주최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

제28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10:00~12:00
- 장소 : 한국행정연구원 강당동 2층 대강당
- 주최 :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사회 : 이대희 교수 (광운대학교)	
11:00 ~ 10:10	인사말	안성호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10:10 ~ 11:00	발표	박재순 소장 (한국씨알사상연구소)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11:00 ~ 11:30	토론	유창복 대표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임동진 교수 (순천향대학교) 차세영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11:30 ~ 12:00	Q & A	참석자 전체 Q&A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 1

○ 발표: 박재순 소장 (한국씨알사상연구소)

○ 토론

1.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대표)

/ 19

2.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 21

3.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5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발표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박 재 순 (한국씨알사상연구소 소장)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마을 공화국의 철학: 안창호의 애기애타와 대공정신

박 재 순 (한국씨알사상연구소 소장)

서양문명의 극복과 한국 생명철학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서양문명이 주도한 생명 파괴적 생활양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서양문명이 주도하는 생활철학은 물질론과 기계론이다. 마르크스뿐 아니라 모든 자연과학자들과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물질론(유물론)에 매여 있다. 대표적인 탈현대주의 철학자 들뢰즈는 생명체를 ‘육망하는 기계’로 인간을 ‘생각하는 기계’로 보았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계산하는 기계다. 돈과 물질은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계적 계산과 물질적 인과관계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물질론과 기계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생명체와 인간을 죽은 물질과 기계로 보는 철학과 생활양식에서 자연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자연생태계 파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것 같다. 우주 물질과 생명과 인간을 죽은 물질과 기계로 보고 대하고 만나고 사귀면 반드시 파멸과 죽음에 이르고 만다!

물질론과 기계론에 함몰된 서양문명은 자신의 근원과 기동인 히브리 기독교정신과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을 버림으로써 생명과 정신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히브리 기독교정신은 깊은 영혼과 초월적 생명(역사) 이해를 전해주었고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은 존재와 가치의 고결한 형이상학을 남겨 주었다. 오늘 서양문명에서 그리스의 형이상학적 존재론과 기독교의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생명철학은 사라졌다. 서양의 정신사에서 그리스철학과 기독교정신의 진정한 통합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대와 중세의 가톨릭 신학은 기독교의 초월적 생명철학을 관념화하고 그리스의 고결한 형이상학

을 도구화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관념적인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한 스킨철학에 머물렀다. 근현대의 서양철학은 칸트의 인식론적 이성 철학 이후 초월적 생명철학과 고결한 형이상학을 몰아내고 물질론과 기계론을 바탕으로 과학적 이성과 양심적 의지를 내세우는 도덕철학에 머물렀다.

한국의 근현대는 조선왕조의 자멸적 쇠퇴, 일제의 식민통치, 남북분단과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국가권력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정신과 사상의 해방구를 가지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안창호 이승훈의 교육독립운동, 삼일독립운동에서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은 한민족의 정신세계 속에 정신과 사상의 해방구를 열어 놓았다. 한국 근현대의 정신과 사상의 해방구는 히브리 기독교의 초월적이면서 혁신적인 생명철학과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의 과학적이면서 고결한 형이상학을 통합할 뿐 아니라 하늘과 인간과 땅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유기체적 생명사상, 한국적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통합하는 깊고 현대적인 생명철학을 낳도록 한민족을 이끌었다.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의 철학은 통합적이면서 깊고 현대적인 생명철학을 낳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과학적이면서 민주적이고 영적이면서 현대적인 생명철학을 확립할 때 새로운 생활문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왜 마을 공화국을 이루어야 하는가?

시대의 요청

씨을 민중¹⁾의 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에서만 마을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민주공화국은 필연적으로 마을공화국을 요구하고 마을공화국을 통해서 완성된다. 마을공화국은 씨을 민중이 직접 협의하고 합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작은 나라다. 민주공화국은 마을공화국의 권력과 권한의 위임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나라다. 민주공화국의 시대는 국가, 민족의 평등이 이루어져 세계 국가들의 연합과 연방을 만들어 가는 시대다. 주권자인 씨을 민중은 국가에 소속하면서 국가를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의 마을공화국들과 연대할 수 있다. 마을공화국의 철학은 마을공화국의 주체인 '나'의 인격과 덕성을 확립하고 지역에 터잡은 마을공동체의

1) 씨을은 생명과 역사와 나라의 주인과 주체임을 자각한 민중이다.

상생공존하는 생활원칙과 도덕을 정립하며,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고 근현대의 이념과 원칙인 민주화, 과학화, 세계화를 실현하는 세계보편성을 담보해야 한다.

생명의 요청

생명은 물질 안에서 물질을 초월한 것이다. 물질 안에서 물질에 힘입어 사는 생명은 물질의 주인과 주체로 살아야 한다. 생명은 물질의 법칙적 제약과 존재적 속박에서 해방된 기쁨과 신명을 가진 것이며 물질, 육체의 제약과 속박을 넘어서 그 기쁨과 신명을 누리고 나누고 기리는 것이다. 물질과 육체의 제약과 속박에서 해방된 생명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기쁨과 신명, 자유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기리고 실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이미 공화국의 모범을 보였다. 뇌와 신경망, 염통과 허파, 위와 장, 간장과 쓸개, 콩팥은 서로 다른 기능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면서 서로 헌신하고 협력하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생명진화와 인류역사는 겉보기에 갈등과 대립을 통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희생과 양보, 용서와 화해를 통해 발전하고 진화하고 진보해 왔다. 포유류와 꽃씨 식물은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생명세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상생 공존의 평화세계를 열었다. 포유류는 약하고 부드러운 길로 희생과 사랑의 길로 진화 발전했다. 자신의 몸속에서 새끼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젖을 먹여 새끼를 기르는 포유류의 모성애가 진화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포유류의 모성애에서 인간의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닦여져 나왔다.

인간의 요청

인간은 우주, 자연생명, 인류의 씨울이다. 인간의 생명 속에는 우주, 자연생명, 인류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 살아 있다. 인간은 우주, 생명진화, 인류의 빅 히스토리를 가진 것이다. 개체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개체가 있으므로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하고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인류사회는 근본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산업기술사회의 주인으로 살려면 물질론, 기계론, 관념론의 결정론과 환원론을 극복하고, 물질가치와 계산가치를 넘어서 생명의 존재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마을공화국을 이루어야 한다.

2. 한민족이 꿈꾸는 나라: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

한민족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찾아서 아프리카에서 해 뜨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 한반도와 만주로 이주해 왔다. 땅의 물질세계에 안주하거나 속박되지 않고 하늘을 보며 아침에 해가 뜨는 밝고 따뜻한 나라(땅)를 찾아 가장 멀고 긴 순례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한민족이 추구한 나라는 아사달(아침의 나라, 땅, 朝鮮)이다. 한겨레는 하늘을 품고 우러르고 바라는 하늘의 사람들이며 따뜻하고 환하고 아름다운 땅의 나라를 찾아서 오랜 편력의 삶을 살아온 민족이다.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나라와 삶에 대한 큰 열망과 강한 집념을 가진 한민족은 하늘의 높은 뜻과 고귀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다. 한민족의 건국 이야기 단군설화에 따르면 한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높은 이념을 제시한다. 한민족이 가슴에 품고 우러르며 그리워한 하늘, 한은 큰 하나, 개체이면서 전체이고 하나이면서 큰 것이다.

가까운 길벗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의지하면서 온갖 난관과 위험을 이겨내고 밝고 따뜻한 아침의 나라를 찾아온 한민족이 한반도와 만주의 아름다운 땅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이룩한 공동체 문화는 정이 깊고 소통과 교감의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전체가 하나로 되는 하늘의 높은 뜻과 이념을 품고 있다. 그러나 하늘만을 바라보며 작고 긴밀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왔으므로 땅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항구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며 사는데 서툴고, 감정과 생각이 일치하는 작은 집단, 당파, 지역, 진영을 벗어나기 어렵다.

형용사와 부사가 특별히 발달한 한국어는 상대(객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과 교감의 언어다. 그러나 한국어가 1인칭 단수 주어 ‘나’를 말하기 어렵고 3인칭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주체적 개성과 책임을 내세우기 어렵고, 제3의 자리에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정신과 관행을 확립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소통과 교감의 감정이 발달하고 일시적으로 자아를 잃고 전체가 하나로 되는 신명과 열정이 넘쳐나지만, 객관적이고 냉철하며,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전체를 아우르는 공적인 사고와 행태가 아쉬울 수 있다.

마을공화국의 철학은 정이 깊고 공동체적인 연대와 교감의 능력을 지닌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면서 개인의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자아 ‘나’를 확립하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냉철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와 행태를 중시하며 나와 우리의 당파적이고 진영적인 논리와 행태를 넘어서 제3의 자리에서 통합하는 공공(公共)의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3. 안창호의 마을 공화국 철학: 무실역행, 애기애타, 대공정신

마을공화국은 마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공화국의 이념과 철학을 확립할 뿐 아니라 그 이념과 철학을 실행하고 구현할 수 있는 품격과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안창호는 민주공화국과 마을공화국의 이념과 철학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훈련하고 수양하여 건전한 인격을 확립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삶으로써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품격과 덕성을 갖추었다. 그는 얼렁뚱땅 즉흥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마구 덤비는 것을 가장 싫어하였다. 그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였으며, 당파주의와 지역주의, 진영이론을 극복하고 크고 원대한 구상을 뜻을 가지고 전체의 자리에서 대공(大公)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려 했다.

그는 개인의 나를 확립하는 ‘나’ 철학을 제시했고 조직과 단체의 신성한 단결을 추구했으며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려 했다. 그는 민주정신, 과학정신, 세계 보편정신을 확고히 가졌다. 안창호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신과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서양의 정신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참되고 온전한 민주 생활철학을 정립하고 실천하였다.

1) 민중체험과 마을공화국

안창호는 나이 만 20세 때 평양의 쾌재정에서 고위관리들과 민중 앞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안창호 자신과 고위관리와 민중이 모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였다. 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민중과 하나로 되어 민중을 하나로 이끄는 체험을 했던 것이다. 그 후부터 그는 민을 새롭게 깨워 일으키는 신민(新民)운동을 이어갔으며 평생 민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친민(親民)의 자세를 지켰다. 그는 조국을 부모의 나라, 어버이의 나라라고 하였다. 민을 새롭게 혁신하는 교육운동을 벌이면서 민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자세를 지켰던 것이다.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할 때 그는 노동자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일하였다.

미국에서 그는 한인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하여 서로 주체로서 함께 일어서는 공립(共立)협회를 조직하였다. 공립협회의 강령 ‘민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함’이 문명부강의 뿌리와 씨라고 안창호는 말하였다. 남의 도움이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한 사

람들이 서로 구원하고 구제하는 환난상구(患難相救)와 환난상제(患難相濟)를 말하였다. 도산이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자립과 자조,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가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산이 일하는 곳을 보고는 ‘도산 공화국’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1902~3년 무렵 “강명화(姜明華)라는 사람이 이 무렵 이 곳을 방문하여 동포들의 생활을 두루 보고, ‘도산 선생의 공화국이 훌륭하다.’고 감탄하였다. 공립협회의 자치생활이 자리가 잡히고 회원들의 경제 토대도 점점 서게 되어, 회원들은 힘과 자신을 얻게 되었다.”²⁾

이상촌, 마을공화국은 안창호가 주장한 인격혁명과 민주국가 사이를 잇는 사다리이고 그가 주장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의 내용이다. 참된 민주공화국은 수많은 마을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1920년 상해서 행한 흥사단입단문답에 마을 자치공화국은 모범 마을의 형태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흥사단의 사업 목적은 “전 민족에게 덕·체·지 3육을 수양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흥사단) 약법에 있는 대로 강습소·강연회·서적 출판부·도서 열람소·간이 박물관·체육장·구락부·학교 등”을 세우는 것이다. 안창호는 이런 기관들이 동리(마을)마다 세워져야 한다고 보았다. “한 동리에 하나씩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 우리 동포 전부가 남자나 여자나 다 문명한 백성이 되지 않겠소?...동리마다 이러한 시설이 없이 우리 민족이 세계에 일등 가는 문명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도산은 한국 방방곡곡에 2만 5천 부락과 수백의 도시에 이런 시설과 기관들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흥사단 입단문답은 “○군은 이 사업(마을공화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겠소? 전 생명과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는 다짐으로 마쳤다.³⁾ 안창호는 평생 이상촌(마을공화국)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을 썼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긴 유훈은 전국 마을 곳곳마다 마을공화국을 이루라는 것이었다.

2) 마을공화국의 기본 철학: ‘나’ 철학과 건전한 인격의 확립

민족의 자조와 자립, 자력과 혁신을 내세운 안창호는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를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깨워 일으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려 했다.

2) 주요한 편저 『안도산전서』 흥사단 2015. 72쪽.

3) 이광수, 『도산 안창호』 하서출판사 2007(6쇄) 209~211쪽.

나의 무한책임

안창호는 ‘나’를 깊이 탐구하여 나와 민족(국가)이 일치하는 지경까지 나아갔다. 국가의 주인인 나는 국가 민족에 대하여 주인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흥사단입단문답에서 이러한 ‘나’철학을 제시하였다. 그는 담대하게 말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가 누구요? 그것은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에 조아(爪牙)를 박게 하였으며,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허용하였소?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⁴⁾ 우리 민족 각자가 한국은 내 것이요, 한국을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이 내게 달렸다고 자각하는 때에 비로소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흥의 여명이 온다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주인인 국민은 남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 탓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 탓 하는 일을 중단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일어설 때 비로소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아아, 나 때문이로구나’하고 왜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을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 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⁵⁾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놈, 저놈을 죽일 놈으로 탓하고 있으면 더욱 불행한 나쁜 상황으로 내몰린다. 내 탓이라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어나 행동하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인격의 확립과 나라의 통일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가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도 나의 나, 너의 나, 그의 나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어떤 나가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4) 이광수 도산 안창호. 135쪽.

5) 이광수 도산 안창호. 135~6쪽.

하지 않는 것이다. 생명철학자 안창호는 국가와 민족을 유기적 생명체로 보았다. 생명체에서 스스로 하는 주체와 내적으로 통일된 전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일치되어 있듯이, 국가와 민족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와 민족 국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안창호는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서 ‘나’의 덕력과 체력과 지력을 기르고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침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는 건전한 인격을 가진 ‘나’를 확립함으로써 조직과 단체의 공고한 단결을 이루고 민족 전체의 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르려고 하였다. 개인의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나’를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쓰면서 나를 교감하고 소통하는 주체, 민족 전체와 일치하는 주체로 확립하였다. 그는 나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가 국가를 어깨에 짊어졌다고 하였고 국가를 민의 생명공동체라고 봄으로써 나와 민족(국가)을 일치시켰다.⁶⁾ 내가 곧 나라이고, 국가다. 그는 민족 전체의 자리에서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일을 추구했다.

3) 마을공화국의 행동원칙, 무실역행(務實力行)

안창호는 평생 무실역행을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무실역행은 억압하고 수탈하는 지배층의 거짓과 불의를 비판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적 삶을 살자는 것이다. 놓고 먹으면서 공리공담을 늘어놓고 민(民)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봉건왕조와 식민 제국주의의 거짓과 폭력을 거부하고 안창호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저마다 땀 흘려 일하면서 진실하고 평화롭게 사는 공립(共立)과 공화(共和)의 나라를 추구했다. 무실역행은 마을 공화국의 생활과 실천의 원리다.

무실은 거짓되고 허황된 생각과 삶을 버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진실하면서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억압하고 수탈하는 위선과 불의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진실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진실은 생명의 속알 정신을 뜻하고 거짓은 생명의 껍질, 표면에 머무는 것이다. 무실은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을 넘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몸과 맘이 마르고 닳도록 열과 혼과 뜻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다. 역행은 즉흥적이고 임시적이고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하는 행동과 삶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철저하고 온전한 삶과 행동을 즐기게 이어가자는 것이다. 무실역행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삶과 행동을 힘껏 오래 하자는 것이다.

6) 안창호 ‘삼선평 연설’ 『안도산전서』 584~5쪽.

생명과 사회의 행동 원리: 공익과 사익의 조화

무실은 진실 하려고 힘쓰는 것이고 역행은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무실은 거짓과 허위를 버리고 진실과 결실을 드러내고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다. 역행은 공허한 이론과 주장을 버리고 남 탓을 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과 일을 떠넘기지 말고, 제 몸과 맘을 다해 스스로 일하고 좋은 생각과 올바른 일을 힘껏 실행하라는 것이다.

무실역행은 생명의 원리다. 생명에는 거짓과 허위가 없다. 거짓으로 싹이 트고 허위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생명은 오로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며 거짓과 허위를 모르는 것이다. 또한 생명은 온 몸과 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생명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지극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생명은 게으름을 모르고 오직 성실히 생의 본성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다.

무실역행은 또한 민주사회의 근본 원리다.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며 살아가는 지배계급은 남을 속이면서 놀고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힘으로 먹고사는 민중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제힘으로 맘 흘려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몸과 맘을 다하여 힘껏 일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고 의무다. 무실역행은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원리일 뿐 아니라 계급과 인종, 지역과 종교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삶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원리다. 모든 사람이 함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제 일을 힘껏 하고 살면 모든 차이와 장애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에 이를 것이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세계정의와 평화에 이르려면 무실역행의 정신과 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과 교사들, 검사와 판사, 기자들과 방송인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공허한 이론과 주장을 내세우며 남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면 갈수록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길은 멀어질 것이다. 사익과 당파의 이익에 눈이 멀고 진영의 논리와 이익에 매몰되어 당파와 진영의 싸움을 하면, 갈수록 진실을 잃고 거짓에 빠져서 옳은 일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무실역행은 사익과 당파의 이익, 진영의 논리와 이익에 함몰된 거짓 주장과 행태를 깨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실익을 지키고 증진하고 고양시키는 것이며 국가의 공익과 평화를 실현하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무실역행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공사병립과 활사개공(活私開公)의 정신으로 대공정신(大公精神)을 실현하는 원칙이고 자세

다. 공과 사를 함께 조화와 균형 속에서 보다 깊고 풍부하게 실현하고 완성해가는 원칙과 자세가 무실역행이다. 그것은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실현할 뿐 아니라 사익과 공익이 보다 깊고 높고 풍부하게 실현되는 진실한 길과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원칙이고 자세다. 사익만 지나치게 내세워 공익을 해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니 거짓과 허위를 내세우고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만을 내세워 사익을 해치는 것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니 거짓되고 허망한 주장이고 행태이다.

사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국가의 진실과 국민의 실익을 추구하는 정신이 무실이고 진실과 실익이 실현되도록 집중하여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역행이다. 무실역행의 정신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업도 정치도 교육도 종교 문화도 중심과 터전을 잃고 흔들리고 흐트러질 것이다. 사익, 당파, 진영의 이익과 논리에 매몰된 공허한 거짓 주장을 버리자. 사육과 당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의 진실과 국민의 실익을 보고 그 진실과 실익에 충실하게 행동하자.

4) 마을공화국의 생활원칙, 애기애타

애기애타의 사랑은 대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구와 동지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나와 남(타인)을 욕망과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생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랑이다. 도산의 애기애타는 나와 남을 주체 '나'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원리다. 나와 남을 주체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살리고 크게 길러주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애기애타에서 애타도 남의 주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므로 '애기'라고 할 수 있다. 도산의 애기애타 사상은 애기에서 시작하여 애기로 끝난다.

특이한 것은 그가 애기애타를 愛己愛他로 쓰지 않고 '愛己愛他'로 썼다는 사실이다. 본래 愛는 마음 '心'과 천천히 걸을 쇠발 '屐'을 담은 글자인데 愛는 그 대신에 벗 '友'를 담은 글자다. 愛는 愛의 간자체인데 안창호는 1920년대 중국 상해에 있으면서 愛라는 글자를 알게 되었을 수 있다. 愛는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다. 愛를 쓴 것은 안창호의 특별한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마음 心과 천천히 걸을 쇠발 屐을 벗 友로 바꾸므로써 도산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사랑을 넘어서 높고 맑은 뜻으로 이루어지는 동지의 사랑을 나타냈다.

친구와 동지의 사랑은 서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의 사랑이다. 심리적인 사랑은 욕망

과 감정과 주장에 매인 사랑이다. 친구와 동지를 내 욕망과 감정의 대상으로 보고 친구와 동지에게 집착하거나 내 주장과 의견을 강요하면 친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친구와 동지의 사랑은 서로 욕망과 감정과 주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살려주고 키워주는 사랑이다. 그것은 서로를 주체로 보고 존중하며,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사랑이다. 친구와 동지 사이에는 충고하고 조언할 수는 있으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도산의 애기애타(爰己爰他)는 걱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지성과 영성의 깨달음을 담은 사랑이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덕력과 체력과 지력을 길러주고 높여주는 사랑이며 나를 나로 너를 너로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실현하고 높여주는 사랑이다.

나와 남을 주체로 사랑하고 실현하는 애기애타는 민주혁명과 과학혁명을 이룬 근현대 정신과 철학의 원리다. 민주혁명과 과학혁명을 이룬 근현대의 시민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민주시민은 저마다 제 삶의 주체로서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서 서로 대등하고 자유로운 친구와 동지의 관계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협동해야 한다. 도산은 자기를 주체로 여겼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체로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사람뿐 아니라 일과 물건도 주체로 존중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닦아세웠다. 도산의 애기애타(爰己爰他)는 걱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지성과 영성의 깨달음을 담은 사랑이다. 그것은 덕력과 체력과 지력을 길러주고 높여주는 사랑이며 나를 나로 너를 너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실현하고 높여주는 친구와 동지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랑이다.

애기애타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포함한다. 안창호는 사물과 일도 그 나름의 가치와 이치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하였다.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회, 인간과 역사는 분리될 수 없다. 양자는 서로 깊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생명과 인간 정신의 원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이 안창호였다. 안창호는 언제나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소중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었다.⁷⁾ 그에게는 사물과 환경이 자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사물과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의 생명과 정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길과 마당, 집안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한 것은 그저 보건위생이나 환경미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떼어낼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길과 마당,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면 인간의 삶과 정신도 깨끗하

7) 이광수, 『도산 안창호』 하서 2007. 147~8, 253~4쪽.

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정신이 환경에 표현되고 실현되는 것처럼 환경도 인간의 삶과 정신에 반영된다. “도산은 집과 주위 환경의 정결과 정돈이 민족 개조의 중요 과목이요 제1과목이라고 생각했다. 몸가짐과 거처부터 개조 일신하지 않으면 문명한 독립 국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⁸⁾

현대의 민주적인 생활원리: 애기애타(愛己愛他)

도산이 내세운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애기애타는 그의 생활철학의 실천원리다. 애기애타는 나와 남을 욕망과 감정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주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여 살리고 높이고 힘 있게 하는 것이다. 나와 남을 서로 주체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애기애타는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원리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서로 권리관계와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고 당파와 진영을 넘어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민족과 국가, 종교와 지역을 넘어서 세계정의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애기는 나를 주체로 존중하고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자치를 실현하고 완성해가는 민주적 주체의 원리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주권을 행사하며 자치를 실현해가는 민주 시민이 될 수 없다. 남을 주체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더불어 살 수 없다. 애타는 남을 주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생하고 협동하는 민주사회의 공존 원리다.

생명철학자 안창호는 생명의 본성과 원리인 ‘스스로 하는 주체’(‘나’)에 충실한 ‘주체’(나)의 철학자였으며 자기와 남을 모두 주체로 보았다. 그는 나와 이웃뿐 아니라 물건과 풍경, 자연물과 인공물을 그 자체로서 다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⁹⁾ 그의 애기애타는 나와 남(이웃과 환경, 사물)을 주체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의 동지애는 상호 신뢰와 존경의 감정을 기조로 한 담담한 애정이다. 도산은 “동지를 믿어서 속으라.”고 말하였다. 또 “세상에 마음 놓고 믿는 동지가 있다는 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소?”라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도산은 우리나라를 사랑의 나라, 미소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하기 위하여 도산은 자신이 사랑과 미소를 공부하고 또 동지들에게 사랑과 미소 공부를 권면하였다. ‘훈훈한 마음, 빙그레 웃는 낯’ 이것이 도산이 그리는 새 민족의 모습이였다.¹⁰⁾

8) 이광수, 『도산 안창호』 하서 2007. 165~6쪽.

9) 이광수, 『도산 안창호』 하서출판사 2007. 258쪽.

5) 마을공화국의 정신, 대공정신

안창호는 당파와 지역과 진영을 넘어서 민족의 대단결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대공주의를 내세웠다. 대공주의는 개인의 자발적 주체와 인격을 약화시키는 전체주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시키는 멸사봉공의 도덕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과 사익을 존중하면서 전체의 공익을 함께 실현하는 공동체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는 공익과 사익을 함께 존중하는 공사병립을 주장했고 개인의 건전한 인격을 확립함으로써 조직과 단체의 단결을 이루고 조직과 단체의 단결을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며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이룸으로써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이르려 했다. ‘나’철학, 무실역행, 애기애타, 대공주의로 이루어진 그의 사상은 개인, 조직과 단체, 민족과 국가, 세계를 하나로 꿰뚫고 있다.

대공정신(大公精神)

민족의 대통합을 추구한 도산은 민족의 통합을 넘어서 세계대공(世界大公)을 말했다.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말하고 국제적으로 민족의 평등을 말하면서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을 이루는 대독립당을 만들려고 하였다. 민족의 통합을 이루는 대독립당의 이념과 목적으로서 그는 세계의 복지와 번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대공을 말한 것이다. 대공(大公)은 궁극적인 공공성의 경지 곧 하늘의 공을 뜻한다. 하늘의 공은 사적 이해관계와 관점을 초월하면서도 공과 사의 대립을 넘어서 공과 사를 함께 실현하고 통합하는 공이다. 대공(大公)은 공사병립과 활사개공의 목적과 지향을 나타낸다.

안창호는 인간의 자발성과 자유, 창의와 개성을 강조했으며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운영하였다. 그 점에서 그는 사의 영역을 존중했으며 창의적으로 실현하고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자발적 주체적 인격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그는 건전한 인격을 확립하고 덕력과 체력과 지력을 기르고 기능과 기술과 전문지식을 배우고 익힐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사적 영역을 넘어서 대공정신을 말하면서 정치경제교육의 평등과 민족의 평등을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공의 평등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창의와 개성의 서로

10) 같은 책, 260~261쪽.

다름과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만인의 주체적 인격과 창의적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평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경제교육과 민족의 국제적 평등이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간의 창의와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사회적 평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대공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온전히 실현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온전히 확립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평등을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대공이다.

안창호의 대공정신은 공사병립과 활사개공을 실현한 것이며 사(私)의 자유와 창의를 충분히 실현하면서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강조하다가 지나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은 사회의 평등을 파괴할 뿐 아니라 민인의 자유와 창의를 위한 조건과 토대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사회의 평등이 기계적 획일적으로 강요되어 민인의 자유와 창의가 억눌려서도 안 되지만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사회의 평등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위해 사회적 평등을 약화시키면 극소수의 창의와 자유만 남고 민인의 창의와 자유는 사라진다. 공사병립은 공은 공대로 사는 사대로 힘껏 최대한 실현하고 확장하라는 것이다. 활사개공은 사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실현하면서 공의 세계를 확장하고 열어가라는 것이다. 공과 사는 기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공 속에 사가 있고 사 속에 공이 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의 '나' 속에 나라가 있고 '나라'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나'가 있는 것과 같다. 공과 사, 나라와 나(개인) 사이에 역동적이고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관계와 조정과 협력이 늘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국민 한 사람의 '나' 하나를 살리고 높이는 것이 사의 영역에 속한 일만이 아니라 나라를 높이고 키우는 공의 영역에 속하기도 한 것이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문화와 품격을 높이는 일이 공의 영역에 속한 일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일이기도 하다.

안창호는 치열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공론을 형성하고 공론을 형성한 다음에는 공론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론에 순복하는 기풍과 자세는 주체(私)의 깊이와 자유에서 전체(公)의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주체의 깊이와 자유에서 전체의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는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하늘이다. 저마다 하늘을 품고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로 솟아올라 나아가는 사람만이 대공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주체의 깊이와 자유를 가지고 전체의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자리를 품고 사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당파에 매이지 않고 기꺼이 질 줄 알고 기꺼

이 복종하는 기풍과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공론에 순복하는 대공정신은 민주사회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다. 또한 그러한 정신과 원칙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회적 생명의 자발적 주체성을 심화 고양하고, 통합적 전체성을 확장하며, 진화와 혁신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마치는 글

무실역행, 애기애타, 대공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도산은 어디서나 한인 노동자와 농장주, 기업인과 정부 모두를 크게 이롭게 하였다. 언제나 그는 길거리와 집안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고 덕력과 체력과 지력을 높이고 모든 일과 생활을 이치에 따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했으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큰 구상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였다. 그는 크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과 이치로서 교화하는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을 온전히 실행하고 구현하였으며 ‘나’철학을 확립하고 무실역행, 애기애타, 대공정신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민족의 기본 정신과 건국이념을 심화하고 확장하였다.

‘한’은 ‘하늘, 하나님, 큰 하나’를 뜻하면서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은 ‘한’(하늘)과 자신을 동일시한 한민족의 정신적 원형질이 되었다. ‘한’의 정신과 사상이 한민족의 정신과 삶과 문화 속에 사무쳐 있다. ‘밝고 환하고 크고 하나’인 한의 광명정대한 정신이 우리 민족의 건국설화에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건국이념으로 표현되었다.

하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민족의 사상과 정신의 경향에 따라서 목은 이색은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없다’(天人無間)고 하여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을 더욱 철저화하였으며, 퇴계 이황은 ‘하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다.’(天我無間)고 하여 주체화하고 심화하였다. ‘한’과 자신을 동일시한 한민족의 한 사상과 정신은 동학에서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으로 알뜰하게 표현되었다. 동학의 기본사상인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은 신분차별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민평등을 주장하고 인간 속에서 천지조화가 일어난다(侍天主造化定)고 함으로써 주체적인 인간과 인성이해를 제시하였다. 동학은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인간이해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을 전체에 귀속시키는 전통적인 천인합일의 사상을 넘어섰다.



그러나 동학의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의 사상은 하늘(천주)과 인간의 관계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역동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안창호와 이승훈은 하늘(천주)과 인간을 직접 동일시하지 않지만, 하늘(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인간, 인간관계, 나라, 교육, 독립운동을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깊고 자유로우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삶과 정신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 있다. 이들의 삶과 행동에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간접적이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되고 실현된다. 다시 말해 하늘,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인간의 지성적 자각과 인격적 책임이 훨씬 극적으로 강조되고 실현된다. 하늘(하나님)과 하늘의 뜻과 진리는 이들의 삶과 정신, 말과 행동 속에서 표현되고 구현되었다.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토론

토론 1 | 유 창 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대표)

토론 2 | 임 동 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토론 3 | 차 세 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2

임 동 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마을 공화국의 철학: 안창호의 애기애타와 대공정신” 원고를 읽고

본 논문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 중의 하나인 무실역행, 애기애타, 대공정신 등을 토대로 마을 공화국을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에는 민족의 번영 및 독립, 세계 공영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당시의 여러 상황과 그의 주요 사상에 대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창호 선생은 조국의 한일합방을 목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해외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진력하였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도 핵심적인 활동을 하였다. 중국에는 일본 경찰에 잡혀서 모진 고문으로 병을 얻어 결국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우선 안창호 선생의 주요업적을 연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다.

1879년 11월 9일 평안남도 도룡도에서 출생

1902년 이해련과 결혼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노동을 함.

190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한인 공립협회 창립

1906년 귀국, 국권 회복을 위한 3개 목표 세움

1907년 신민회, 청년 학우회를 조직

1910년 일본 통감부의 내각 조직 요청을 거부, 블라디보스토크로 감

1911년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

1913년 흥사단 조직

1919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내무 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가 됨.

1925년 호놀룰루 태평양 회의에 참석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때문에 일본 경찰에 체포, 본국으로 송환됨

1935년 대전 형무소에서 4년 복역, 임시출옥함.

1937년 중일 전쟁 직전에 흥사단 동지들과 함께 체포됨. 병보석되어 입원함

1938년 간경화증으로 사망.

그가 살았던 시대는 주로 일제 강점기로 우리의 민족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다. 조선 말기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다툼으로 국론은 분열되었고 세계열강의 문물은 눈앞에 있는데 이를 수용할 자세도 갖지 못하고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여 민생은 곤궁하였고 나라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갈피가 없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태어나 일생을 나라의 발전과 조국 해방이라는 명제를 안고 교육을 일으키고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자신과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로지 조국의 해방만을 염원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각자이다.

안창호 선생의 핵심적인 사상에는 무실, 역행, 충의, 용감 등이 있다. 우선, 무실이 있다. 실은 진실, 성실의 '실'이요, 실질, 실력의 '실'이다. '실'은 참이며 알맹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 '실'이다. 무는 힘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무실'이란, '참되기를 힘쓰자. '진실을 실천하자.'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역행이 있다. 힘써 행하라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몸소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백 가지의 논설보다는 하나의 본보기가 더 힘 있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 스스로 실천의 본보기를 보였다. 행함으로써 배우고, 배움으로써 행하자는 학생 일치 사상을 그는 강조하였다. 셋째는 충의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참되고 신용이 있고, 충성심이 있어야 하며, 옳은 일이면 어떤 것이든지 일단 작정을 하면 내게 이롭건 불리하건 끝까지 성실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이나 용기가 있어야 한다.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준엄하게 가르치고, 참의 편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려면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용기가 있는 인간, 용감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창호 선생이 선생의 흥사단을 조직한 것은 그때까지 유교 사상에 젖어있던 민생들의 생각을 바꾸고 미래의 조국을 강하게 하고자 만들었던 단체로 '사' '농' '공' '상'의 순서대로 흥사단, 흥농단, 흥공단, 흥상단 순서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일차적으로 흥사단을 맨 먼저 결성하였다.

박재순 연구소장께서 발표하신 본 논문은 이처럼 민족의 선각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선생에 대한 지식이 짧은 토론자로 논문을 읽고 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한민족과 다른 민족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문화 외국인이 아니면 국가 생존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민족만이 가지는 장점과 다른 민족과의 공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사상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양식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사상과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하는지? 안창호 선생이라면 어떻게 접근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권력 독점을 막고자 철저한 삼권 분립과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나’ 철학과 ‘무실역행’의 행동원칙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복종의 대상인 백성이나 인민이 아니라 자율적인 비판의식과 규범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서양의 ‘시민(citizen)’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마을 공화국’에서의 마을 주민은 Robert D. Putnam의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책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강력한 민주주의는 지역사회의 시민 역할의 강조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의 향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제자께서는 안창호 선생의 마을 공화국과 Putnam의 지역사회, 또는 우리나라의 현재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안창호 선생이 주장하는 주요 사상은 시대적으로 보면 일제 강점기에 유교사상, 운명주의, 피해주의에 빠져 있던 조선 민생들을 계몽하고자 서양적인 개념인 개인(시민)

들이 보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계몽하고 발전시켜 중국에는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상은 17~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과도 맥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선생 역시 이런 서양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전통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발제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선생의 대공정신은 “만인이 주체적 인격과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등이 요구된다”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마치 자유와 평등의 개념처럼,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 안 되고,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과도 원리로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개념인데,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국가와 관계에서 사익과 공익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어떠해야 하고, 어떤 역할이 궁극적인 바람직한 공공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3

차 세 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재순 소장님의 발표문을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주로 독립운동사 연구들을 통해 접해왔던 내용들과 달리 도산 선생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문을 접하고 박재순 소장님께서 작년에 출간하신 ‘애기애타 : 안창호의 삶과 사상’ 저서도 접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생애뿐만 아니라 사상가로서의 선생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도산 선생의 사상은 ‘혁명 영수’로 칭해졌던 활동가의 생애를 거쳐 실천된 사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울림이 있습니다. 특히 탁월한 지도력과 조직력으로 어디에서든 해외 교민들을 응집시키고 계몽운동을 이끈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날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논문과 연구들을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리더십이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는데, 특히 오늘 박재순 소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애기애타 정신은 최근 ‘애기애타 리더십’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기애타(愛己愛他)’는 도산 선생이 가족들에게 남긴 친필유묵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주체적인 사랑과 존중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현대적인 이념과 개념을 ‘선택하여 발굴’하고 그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강조하여 과대해석하는 실수를 경계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더라도, 현대 리더십 이론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섬김과 봉사, 인간 중심, 도덕적 권위와 양심, 일관된 원칙, 명확한 목표와 비전, 강한 책임감, 사랑, 공동체의식 등의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은 애기애타를 강조하며 마을공화국의 철학으로 제시한 도산의 사상과 닮아 있습니다.¹⁾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추구하며 비밀

1) 박의수(2009). 도산 안창호의 서번트 리더십. 교육문제연구 33.

결사체를 조직하고 임시정부의 실질적 재정을 책임지며 한 평생 독립투쟁을 했던 강경한 독립운동가가 실행한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의 방법이 ‘사랑’을 강조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실천적 사상가의 궁극에 이른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선생의 애기애타 리더십의 본질을 잘 꿰뚫어본 서재필의 추도사²⁾를 소개하며 본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의 갑작스런 서거는 한국에 커다란 손실이다...나는 그가 그의 동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가 조직을 만드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에 서는 친구로 만드는 그의 인품을 존경한다. 나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확신을 심어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미국의 애브라함 링컨은 보잘 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라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안창호가 링컨과 같은 기회를 가졌다면 세상에 더 알려졌을 것이다...그의 견해는 편협하거나 인색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관대함을 지녔다. 나는 그런 인내심을 갖고 의견을 나누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의 냉철한 제안은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솔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요구할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두려움이 없었다.”

2) 이로운넷(2019. 07. 11.) “안창호는 한국의 링컨이다” (장석홍 칼럼)
(출처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642>)

제28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도산 안창호의 마을공화국 철학

